

방재시험소에 거는 기대

危險管理 改善으로 罹災率 減少期待



車 和 俊
〈汎韓火災海上保險(株)社長〉

經濟 발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防災 수준은 아직 初步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금년 겨울에도 연례행사처럼 끔직한 화재가 잇달아 일어나 우리를 섬짓하게 하고 있다. 막대한 內外資를 들여 세운 工場 건물들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많은 人命이 피해를 당할 때마다 哀惜한 마음과 함께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우리 經濟는 新興工業國의 단계에서 先進國으로의 浮上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防災 분야만은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此際에 防災試驗所가 起工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8월까지 1단계로 기초시험연구에 필요한 시설이 준공되고 85년 말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종합화학시험동, 防耐火試驗棟 등이 완공될 예정이라니 우리나라의 防災 연구도 進一步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하겠다.

防災 분야는 얼핏 生産性과는 別無하지 않은가 하는 短見의 생각을 갖기 쉽고, 그래서 다른 분야에 비해 발전이 뒤늦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일찌기 19세기부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됐고 지금은 연구대상이 상당히 포괄성을 갖고 있다.

단순히 화재 등의 재난방지 수준을 넘어서 安保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이다. 더우기 각종 재해의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테러리즘마저 橫行, 그 흉폭성을 더해 가고 있음에 비추어 防災 분야의 발전은 시급히 서둘러야 할 과제라 하겠다.

그래서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새로 設立되는 防災試驗所가 防災의 科學化는 勿論 先進國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防災產業에 있어 각종 방재기기의 연구개발을 통해 선진국형 機器를 보급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며 대학 등의 연구기관과의 제휴를 가져 防災학문 연구에도 주축적 기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산업에 있어서는 보험목적물의 정확한 위험도 측정으로 적정한 보험료가 산정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위험관리의 啓導의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防災활동이 체도에 올라서면 罹災도 감소하여 보험료도 낮출 수 있어 對顧客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보험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防災試驗所가 국가의 방재정책 수립에 주요한 몫을 할 수 있도록 종합방재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